

협회소식

KOREA SWINE ASSOCIATION NEWS



내년 8월까지 전국 양돈장 냄새 실태조사 저감방안 연구



2005년 양돈자조금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한 '양돈장 냄새 실태조사 및 냄새 저감 방안 연구용역에 '진주산업대학교'가 선정

되었다. 이에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전국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냄새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진주산업대 김두환 교수팀이 제출한 연구사업 계획서는 양돈장 냄새 실태를 조사하고 냄새 저감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악취민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동 사업자는 양돈장 냄새

실태조사를 계절별·경영규모별·농장 시설별·환경개선제 사용 여부에 따라 냄새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 및 돈사시설·분뇨처리 과정 적용 개선 방안, 비용을 고려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냄새 저감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본회는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 양돈장에서 늘 냄새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가 양돈 농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본회, '양돈장 냄새 저감 안내서' 제작·배부

양돈농가 큰 호응



본회가 2005년 양돈자조금동자금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발행한 '양돈장 냄새 저감 안내서'가 양돈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회는 '양돈장 냄새 저감 안내서'를 1만1천부를 발간하고, 지난 8월말 전국 양돈농가와 본회 지부, 농협, 축협, 양돈조합, 농림부 산하 기관, 시·도청, 교육기관, 언론사,

협회 및 학회 등으로 배부했다.

또한 본회는 2005 한국국제축

산박람회 본회 홍보관에서 이 책자를 배부해, 홍보관을 방문한 양돈 농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평가받았다.

본회,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 실태조사 계획

본회는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양돈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실시한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 실태조사'를 올해에도 실시한다.

본회는 전국 500두 이상의 전업규모 양돈농가 중 약 500농가를 선정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조사할 예정이며, 성별·연령·학력·종사기간 등 일반적인

현황과 돈사면적·사육두수·출하두수 등 생산현황, 생산성적 및 경영현황 등 다각도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내용은 지난 2001년과 2003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해 최근 양돈농가들의 경영상황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각종 정책개발 및 대책수립의 자료로 삼는 등 향후 양돈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축산박람회 참관객·참가업체 모두 '원-원'

박람회 참관객·참가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련 단체 권유로 박람회 참관, 축산기자재관 관심 가장 커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회장 최영열, 추진위원장 윤희진)가 지난 9월 2일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박람회가 참가업체와 참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박람회 기간 중 참관객(496명)들과 참가업체(178개업체)들을 대상으로 박람회 행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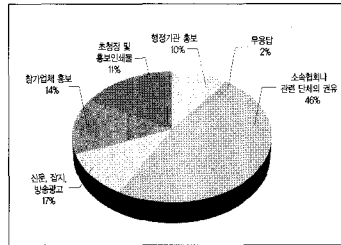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관객들은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참관하게 된 동기에 대해 소속협회나 관련 단체의 권유(47%)로 참관하게 됐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전시회에 가장 관심있었던 관은 응답자중 39%가 축산기자재관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사료 및 동물약품관, 축산물브랜드관, 축산기관 및 단체관 순이었다. 또한 차기 박람회 개최지는 응답자중 51%가 대전(KOTREX)을 꼽아 서울(COEX, 31%)보다는 대전을 더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참관객들은 박람회 전체에 대해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했으나, 냉방 등 편의시설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또한 참가업체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사의 기업 이미지 신장에 도움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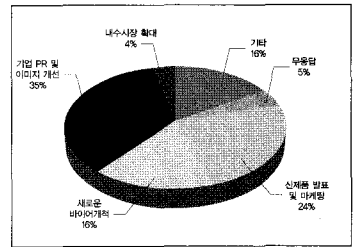
에서는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로는 34%가 기업PR 및 이미지 개선을 꼽았으며, 24%는 신제품 발표·마케팅을, 16%는 새로운 바이어 개척을, 4%는 내수시장 확대를 꼽아 참가업체들은 박람회를 통해 기업 이미지 신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참가업체들은 박람회 기간 중 45%가 제품판매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중 63%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업이미지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44%의 응답자는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신규 고객 확보에 도움을 얻었다고 답했으며, 박람회 전 시간 동안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54%의 응답자가 만족, 31%가 보통이라고 답해 전반적으로 박람회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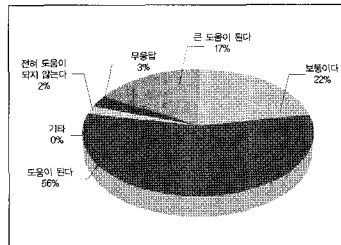
참관객 박람회 참관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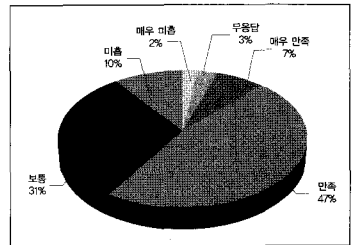
참관객 박람회 참가 동기



박람회 참관 후 사업, 식생활, 학습에 대한 도움 정도



전시기간 중 회사 성과정도



양돈업 등록제 8월말 현재 82.1% 등록

가축방역 및 친환경 축산업 영위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8월말 현재 전체 대상 농가 4만3,029 농가 중 88.8%에 해당하는 3만8,195여 농가에 해당하는 농가가 축산업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정 등록기한인 올해 12월 23일까지 전체 대상 농가가 모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등록률이 높아진 것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 축산농가의 공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돈농가의 경우 대상 농가 9천822농가중 82.1%인 7천450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분회는 전국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초기에 양돈업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림부·본회 공동 「여성 양돈 대학」교육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25일(목)~27(토) 2박 3일간 전북 김제 모악산 유스호텔에서 여성 양돈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여성 양돈대학」교육을 개최했다.

농림부와 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양돈연수원이 주관한 여성 양돈대학에는 가족 전업농의 여성 경영인을 비롯해 취업 여성 관리자와 양돈장 취업 희망 여성 등 많은 여성 양돈인이 모여 양돈산업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교육은 첫째 날에 본회 최영열 회장의 '자조금과 한국양돈' 강연과 함께 농림부의 '소비자 기호와 브랜드육',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으며, 한국양돈연수원장이 '우리가 돼지를 기르는 이유'에 대해 강의해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줬다.

한편 둘째 날에는 기초 사양관리, 질병과 소독, 부부영농과 현대경영, 환기의 새로운 개념 및 뜻이 있는 자녀교육, 전기와 돈사 등 실

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양돈교육이 진행됐다.

그밖에 사육가가 만드는 놀라운 돼지고기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영열 회장, 돈가 하락 대비 기본관리 철저 당부



본회 최영열 회장은 최근 전국 양돈농가들에게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준 농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돈가 하락을 대비하여 기본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농지내 축사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농지법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힘을 보태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농지내 축사 설치가 요원한 것은 아닐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생산이력제 추진, 가축분뇨 문제 해결 등 양돈산업의 현안과제들도 해결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양돈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국양돈장 질병 실태조사와 전업농가 실태조사 계획도 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기 위해 전국 양돈농가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본회 이재식 부회장, 부경양돈농협 조합장 당선



지난 9월6일 부경양돈농협 제8대 조합장 선거에서 이재식 본회 부회장(김해지부장)이 당선됐다.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악천후 속에서 진행되었던 제8대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의 높은 관심으로 95.1%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이번 선거에서 이재식 당선자는 한영섭 현 조합장을 누르고 신임 조합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식 당선자와 한영섭 현 조합장 2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가운데 선거당일 전체 조합원중 540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재식 후보가 311표를 얻어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번에 당선된 이재식 후보는 조합원이 주인되는 건설하고 투명한 조합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선거에 임하였으며, 김해시 한림면 출신으로 국립 창원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부경양돈조합 이사 와 감사 및 전국 양돈조합연합회 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삼화축산 대표로 본회 부회장 겸 김해지부장을 맡아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양돈인이다.

한·아세안 FTA 강력 반대

지난 6일~9일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

한 제5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농민단체와 NGO 등이 정부의 한·아세안 FTA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서울대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곡물, 열대과일, 소·돼지·닭 등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어, 아세안과의 FTA가 체결되면 쌀을 제외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고 가정할 때 농업분야 국내 생산감소액은 연간 1,300여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 생산 감소액은 50~80억원, 과채류는 860~910억원, 소·돼지·닭 등 축산물은 190~22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1검정소, 252차 검정돈 평균 낙찰가 122만원

우리 협회 제1중돈능력검정소(소장 강왕근) 제252차 검정돈 경매가 지난 9월 14일(수)에 개최되었다.

이날 경매에는 포천중돈 슈퍼돈 1두, 호박중돈의 슈퍼돈 1두를 비롯하여, 최우수돈 12두가 상장되었다.

총 159두(수 111두, 암 48두)가 상장된 이날 경매결과, 평균 낙찰가는 118만566원을 기록했다. 최고가 낙찰돈은 포천중돈의 듀록 수 돼지(선발지수 286점)로 500만원에 충남 당진 축협 김기원씨에게 낙찰되었다.

한편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83점)은 400만원에 낙찰되는 등 이날 경매의 낙찰 총액은 1억8천710만원을 기록했다.

제2검, 181차 검정돈 평균낙찰가 112만8천원

지난 9월 13일(화)에 열린 본회 공인중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81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낙찰가는 112만8,161원을 기록했다.

이날 경매에서는 최우수돈 12두를 포함 총 174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74두 모두 낙찰돼 낙찰 총액은 1억9,630을 기록했다. 한편 수컷은 총 136두, 평균낙찰가 123만7,574원을 기록하고, 암컷은 총 38두, 평균낙찰가 73만6,579원을 나타냈다.

또한 최고낙찰가를 기록한 문경 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75점) 최우수돈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근석씨에게 360만원에 낙찰됐다.

양돈업 소득증대를 위한 양돈 기술 세미나

-9월 30일(금)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사)영남축산진흥회(회장 조옥봉, 양돈협회 대구지부장)는 대구·경북축산발전과 양돈산업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양돈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양돈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30일(금) 경상북도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양돈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 및 '명품브랜드 돈육생산 전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돼지 사양기술', 'PMWS의 올바른 이해와 내용'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일시 : 2005년 9월 30일(금)

10:00~15:00

▲장소 :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대구시 북구 동호동 492-4 053-320-0252)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충남도협, 양돈업 등록 적극 독려키로

충남도협의회는 충청남도 지역이 9월까지 100% 양돈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적극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충남도협의회는 지난 8월 11일 남성현 충남도협의회회장을 비롯해 충남도 내 본회 지부장 및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양돈농가들이 조기에 축산업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부별로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날 남성현 도협의회장은 "오늘 회의가 축산업 등록제를 비롯해 양돈업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내 지부장님들과 충남도청 축산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가 9월까지 조기에 양돈업 등록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충청남도는 7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울산지부, 양돈업 등록제 적극 동참키로

울산지부(지부장 이상국)는 지난 8월 12일 8월 월례회의를 개최하

고, 축산업등록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 축산과, 울진군 축산과 담당 공무원과 이상국 지부장 외 회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양돈업 등록에 적극 참여해 양돈산업 발전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이어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서남지부, 양돈 사양관리 정보 교환의 장 마련

서남지부(지부장 손용조)는 지난 8월 18일 지부 사무실에서 양돈 사양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진양돈컨설팅 김기룡 소장이 강사로 참석해 '양돈 사양관리 및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에 대해 강의했으며,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 등 20여명은 사양관리와 관련한 강의를 들은 후 회원간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KISTOCK 2005 참관...회원간 친목 도모



서남지부(지부장 손용조) 회원 등 30여명은 지난 8월 31일~9월 2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참관하고, 지부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남지부는 이번 박람회를 참관하게 된 것은 회원간 단합을 도모하고, 최신 양돈기술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며, "박람회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있는 축산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박람회 참관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영천지부, 양돈 사양관리 정보 교환의 장 마련

영천지부(지부장 권춘구)는 지난 8월 23일 지부 사무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부 회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양돈업 등록에 적극 참여해 양돈산업 발전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이어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가와 여성양돈대학 참가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조강모 애니멀클리닉 강사를 통해 양돈산업의 정부정책 방향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양돈세미나도 함께 이어져 양돈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선수 당진지부장 우수축산인 대상(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차선수 당진지부장

본회 차선수 이사(당진지부장)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전시 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 마지막 날 열린 우수 축산인들에 대한 시상식에서 양돈부문 우수축산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정읍지부 회원일동 수재의연금 전달



정읍지부(지부장 김공수)가 양돈인의 훈훈한 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9월 8일(목) 정읍지부 회원일동은 수재의연금 650만원을 정읍시장에게 전달해 양돈인의 따뜻한 정을 이웃사람들과 나누었다.

정읍지부에서는 "이번에 모금한 수재의연금이 태풍으로 피해를 본 이웃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많은 양돈인의 사랑이 전달되는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지부, 호흡기 질병 예방에 만전 기하기로

평택지부(지부장 김용진)는 지난 9월 8일 평택축협 회의실에서 김용진 지부장의 지부 회원 35명이 모인 가운데 9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석 결과보고 및 호흡기 질병예방을 위한 기초관리에 관

한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월례회의에 이어 평택축협에서 개최한 PMWS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환절기 돼지고기성 질병에 대한 정보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시부, 진주복지원 등에 돼지고기 전달



진주시부(지부장 이동문)은 지난 8월 31일 진주시 축산단체연합회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진주시부가 주관하여 개최한 이날 행사는 진주지역의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단합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를 맞아 진주시부는 진주복지원, 성프란치스코 요양원 등에 정육 각각 200kg씩 총 400kg을 전달하여 양돈인의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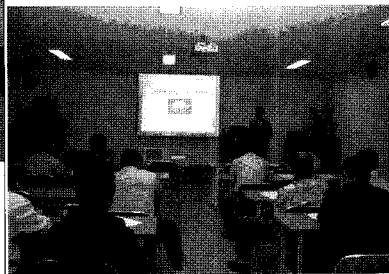
서산태안지부, 불우이웃돕기 돼지고기 전달

서산태안지부(지부장 윤석환)은 지난 9월 13일 서산시장에게 불우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돼지고기 정육 560kg(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서산군내 서림복지원 등 17개 단체 등



에 기탁되어 양돈인의 따뜻한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눌 예정이다.

최영열 회장, 가평지부 방문 교육



본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9월 21일(수) 김건호 경기도협회장, 지도부 이정만 주임과 함께 가평지부를 방문했다.

가평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원들과 간담회에는 김건호 도협회장과 신성균 지부장, 지부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최근 양돈현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했다.

최영열 회장은 양돈협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돈자조금 사업을 비롯해 양돈협회 특별위원회의 운영현황,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TV광고 등 소비홍보 사업,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전업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전국 양돈장 질병 실태조사 등 협회 추진사업과 함께 축산업 등록제의 필요성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돈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진 질의, 답변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최영열 회장, 고양지부 및 평택지부 방문 간담회 개최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9월 22일(금) 고양지부와 평택지부를 차례로 방문하고, 회원과의 간담회를 가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양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회원들과 간담회에는 김건호 도협회장과 황차성 지부장, 김윤영 고양축협조합장, 민흥기 축산계장, 지부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고양지부 양돈농가 단합의 길을 모색했으며, 최영열 회장과 함께 최근의 양돈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돈자조금의 성패는 향후 양돈 산업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의견을 함께 하고 양돈자조금의 효과적인 거출을 위해 자조금 제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돼지고기 소비홍보 활동, 농가교육 연구조사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평택지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평택지부 방문 교육에서는 김건호 도협회장과 김용진 지부장, 평택축협조합장, 지부회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영열 회장은 회원들에게 2005 국제축산박람회, 전업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전국 양돈장질병 실태조사 등 최근 양돈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문**